

# 홍막 폐렴은 예방이 가능한가?

— 돼지홍막폐렴의 문제점과  
방역대책을 알아본다 —

우리나라 양돈산업도 이제는 企業化 농장이 主流를 이루게 되면서 多頭飼育이 보편화되었으며 多頭飼育은 필연적으로 密集飼育을 수반하게 된다. 집단밀집사육 양돈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내는 질병이 호흡기 질병이다.

최근에 호흡기 질병 중 홍막폐렴에 관한 논의가 자주되고 있음을 보게되는데 아직은 양돈농장에서 인식도가 낮은 병명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병의 원인균은 병독성이 매우 강한 Haemophilus Parahaemolyticus (헤모필러스 파라헤몰리티쿠스)라고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H. Pleuropneumoniae (헤모필러스 플로로뉴모니아)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있다.

홍막폐렴의 원인균은 60년대에 유럽제국에서 최초로 분리되었으나 1975년에는 이웃나라 일본에까지 침투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H. Pleuropneumoniae균을 분리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 질병은 보균농장에서 기후가 급변한다든지 환기불량, 밀집사육, 수송, 기타 스트레스적 환경등에 처하면 발병하게 된다. 증세는 돌연히 發熱하며 (41.5~42°C) 원기와 식욕을 잃고 옆으로 눕거나 개와 같은 모습으로 앉기도 한다. 입을 벌리고 腹式호흡을 하며 구토하는 수도 있다. 또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심한 경우에는 콧물에 거품과 피가 섞여나오는 경우도 있다. 발병율은 그다지 높은편이 아니므로 다행이지만 일단 발병했다하면 심급성인 경우 24시간내에 폐에 심한 손상을 입고 거의

100% 폐사하게 되므로 치료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하며 발병이력이 있는 농장에서는 불현성 감염의 형태로 보균농장이 되므로 발병여건만 조성되면 언제고 재현된다는 점 때문에 홍막폐렴은 예방이 최선의 방어 수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예방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의 예방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것은 세계적으로도 홍막폐렴의 예방백신을 제조하는 회사가 극히 희귀(1-2개사)하다는 사실 때문이었던 것 같다.

H. Pleuropneumoniae는 5가지 Sero Type으로 분류되는데 미국, 캐나다, 화란, 대만 등에서 검출되는 것은 Type 5이고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일본 등지에서는 Type 2가 검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와 5형이 모두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홍막폐렴을 예방하려면 2+5복합형의 백신이래야만 어느 농장에서도 방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홍막폐렴에 관한 깊은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는 덴마크의 Northern Drug사는 최초로 홍막폐렴 예방백신을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성에 따라 Prevalent형인 Type 2+5 혼합백신 프로리노드(Pleurinord)를 제조하여 임상시험 성적과 함께 국내에 공급하고 있어 홍막폐렴으로 인한 손실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공급과 자료에 관한 요청은:

(02) 778-0853, 753-5767 덕수가축약품상사로 하면 된다.

〈전 면 광 고〉